고은 불교대하소설

우녀마저

새벽 예불시간이 되어서야 우녀는 등에 찬바람이 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곁에 어둠속 나무가지에 아주 단정하게 앉은 올빼미처럼 있어야할 소석행자가 보이지 않았다.

어찌 내가 회향(回向)할 것이 있겠는가. 어찌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돌려줄 공덕이 있겠는가.

회향할 것이 없을진대 나와 함께 살아가는 행자까지도 차라리 잘 떠나는 것인지 모르리.

이런 생각 가운데는 벌써 소석이 무욕도를 떠난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우녀의 직감 따위도 어디로 달아나버렸는지 통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날의 예성강 하류 포구의 여기저기를 맴돌던 시절의 그 실성(失性)을 통한 신기(神氣)도 점기(占氣)도 그리고 그것이 이곳에서의 수행을 통한 예시적인 통찰로 된 직감도 갑자기 끊어져 버렸다.

이제까지의 우녀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예성강 기슭을 떠돌던 처녀가 아니라 그 이전의 정상적이며 평범한 소녀시절의 무지(無知)로 돌아간 것일까.

그녀가 생각한 회향을 마지막으로 우녀에게는 더이상의 섬뜩한 직관 따위는 없어져 버렸다. 마치 쥐구멍 속으로 들어간 것이 분명한데 그 구멍에 쥐가 없는 것 같았다.

인담이 아침 좌선을 마친뒤 아래채로 내려와 우녀에게 물었다.

"두 행자가 보이지 않는데…."

우녀의 대답은 이제는 무덤덤할 수 밖에 없었다.

"글쎄요… 간밤 소석행자는 함께 잤는데…."

"내가 넘어가 볼 터이니"하고 인담이 바위언덕 넘어 선착장 쪽으로 갔다.

그는 때배 하나가 없어진 것으로 상을 소석이 섬을 떠나버린 사실을 알았다. 아니 선착장 부근의 바위 모서리에는 두 행자 중의 누구의 것임에 틀림없는 염주가 떨어져 있었다.

인담이 다시 우녀한테 돌아왔다.

"떠났어"라고 약간 화를 내는 목소리에 가까운 말이 우녀에게 들렸으나 우녀는 떠나거나 돌아오거나 그런 것에 전혀 둔감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갈매기들을 도반이나 상좌로 삼아서 살아가야 할 형편이로다."

그런 말에도 우녀는 전혀 마른 쑥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이제는 오직 인담선사의 뒷바라지나 하는 한 숙맥같은 아낙네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 놀라운 총기(聰氣)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는 지혜의 섬광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 오만하기까지 한 확신의 기상들이 마치 뛰어난 장군과 용감한 병사들이 철수한 뒤의 텅빈 진지(陣地)처럼 쓸렁할 따름이었다.

인담이 그렇게 변한 우녀를 반신반의로 알아차리기까지는 사나흘동안 확실하게 겪어본 뒤였다. 그만큼 인담의 우녀에 대한 신뢰나 경의(敬意)는 굳건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욕도의 두사람은 더이상 상을 소석의 행방에 쓸데없는 궁금증을 이어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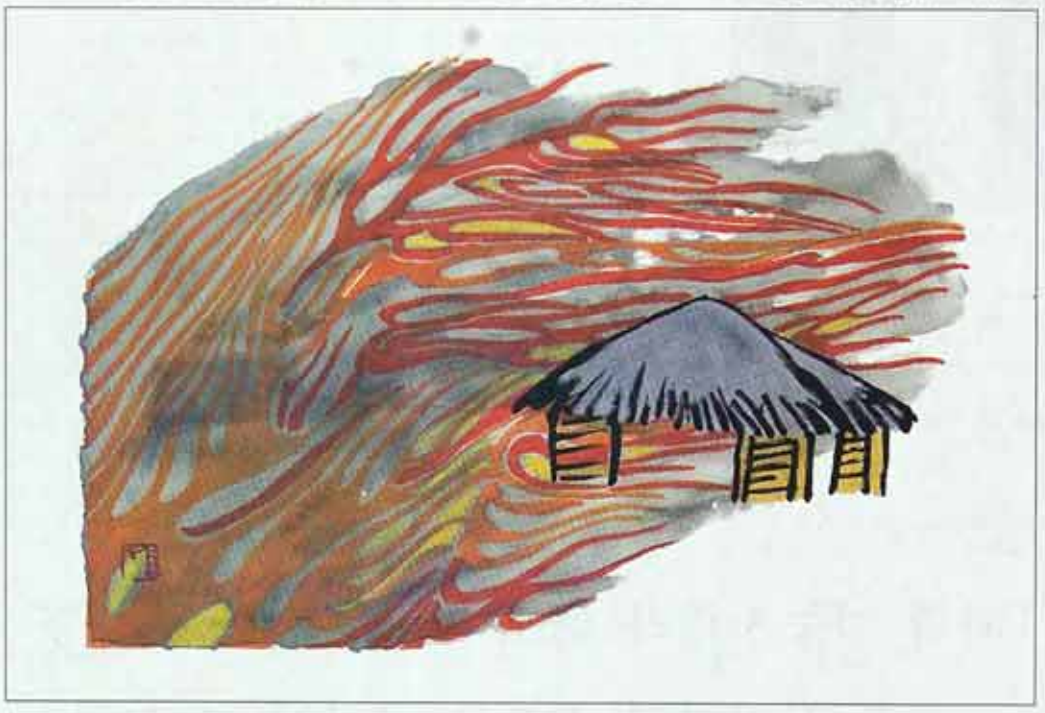
작도 인담에게는 도무지 허황한 노릇이었다. 돼지나 소의 동작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지경까지 급강하한 상태의 인담과 우녀들의 그 어리석음이라는 제자리야말로 그들이 지향한 수행의 한 구경(究竟)은 아니었는지….

두 사람의 정신적인 사정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일상생활도 굳이 수행자의 그것으로 되지 않았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부싯돌을 쳐 촛불을 밝히는 따위의 일도 없고 빈 방석위의 향상 없는 부처님한테 3배의 큰 절을 죽비를 치며 되풀이할 까닭도 없게 되었다.

인담은 자루한 갈손으로 굳어진 늙은

해적떼 한 너석이 담뱃불 부싯돌을 친김에 요사채 하나에 불을 질러버렸다 불을 보고있는 인담의 몸에서도 불이났다



아니었다.

말하자면 그들의 정신이 그럴진대 그들의 색욕도 거의 털려버린 것이었다. 어느 도둑에게 말이다.

그런 여름이 다할 무렵 무욕도의 낮에도 귀뚜리 울음소리가 심심풀이로 파도소리 사이에 저 세상의 소리인듯 점철되고 있는데 그 귀뚜리 소리가 갑자기 멈추어지면서 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사나이들은 청나라 해적 한 패거리였다. 아마도 육지의 바닷가 포구 몇군데를 털고 난 뒤 심심풀이로 무욕도에 발을 디딘 것인지 몰랐다.

청나라 해적때에는 반드시 조선말을 하는 조선사람 하나가 통변(通辯)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정부에서 임용하고 있는 양반과 상인(商人) 사이의 중인(中人)속에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역관(譯官)도 많았으나 민간에서도 갖가지 동기에 의해서 청나라 북쪽 소주 언저리의 남경어(南京語)나 연경어(燕京語)를 쓰는 통변인이 부쩍 늘어났다.

이번의 해적 끄나풀인 통변도 전라도 서남쪽 다도해에서 잡혀간 고기잡이였던 것이다.

해적 패거리의 젊은 소두령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후줄그레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제법 위엄을 부리며 조선말로 옮겨주었다.

"너희들은 부부냐?"

그때 인담이 어물찍거렸다. 그러자 패거리 하나가 그런 인담의 따귀를 넓적한 손바닥으로 갈겨댔다.

"그렇습니다"라고 인담이 대답하였다.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느냐?"

"너무 오래되어서… 몇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따귀에 손바닥이 올라붙었다.

우녀가 나섰다.

"십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새끼를 낳지 않았느냐?"

"예… 그것이…."

세번째 따귀질이었다. 인담의 한쪽 얼굴에 불이 번쩍 나는 것이었다. 인담이 울고 있었다. 그러자 우녀도 울었다.

소두령은 그런 머저리 같은 두 남녀를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그동안… 10년동안… 너희들은 대관절 몇반이나 재미를 보았느냐?"

이 말에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바위 틈서리에 사는 겨울잠 잔 개구리가 힘없이 뛰쳐나오듯이 우녀의 입이 열렸다.

"우리 영감은… 그냥 그런 일을 못하는 고자입니다…."

"으하하하."

"으하하."

"하하하하하."

"하하."

패거리들이 일제히 웃음바다를 피워냈다. 젊은 소두령은 뜻밖에도 마음쓰는 것이 큰 쪽이었다.

"그만두자… 그대신 이 고자 부부가 사는 곳을 대강 뒤져보아라… 혹시 아느냐… 금은보화를 훔쳐가지고 여기로 건너온 것들이 아닌지 모를 일이니…."

패거리들은 그들의 익숙한 솜씨로 아랫채 윗채의 여러 구석을 뒤져보았다. 금은보화는 커녕 제법 쓸만한 놋그릇 따위도 없었다. 다만 불단의 다기(茶器)와 향로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는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았다.

"순 알거지들입니다"라는 패거리의 말에 소두령은 인담과 우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가 입을 열었다.

"고자는 놔두고… 이 아낙이 그래도 쓸데가 있을 터이니 배에 태워라"라는 명령이었다.

그러자 소두령 바로 밑의 다부진 패거리가 그 명령에 맞섰다.

"배에 부정한 계집 따위를 태우면 용왕의 노여움이 있을까 저어되는데… 간밤 소인의 꿈이 해괴합니다… 여우 한 마리를 만나 그 여우가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예끼! 재수없게스리."

그들은 우녀를 데려가는 일을 그만 두었다.

그대신 고자 인담을 강제로 옷을 벗겨서 양물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고약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사타구니에 금은보화가 달려있구

인담과 우녀는 법의 힘이 가뭄의 풀처럼 시드니…

지난 날의 인담과 우녀만의 섬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담조차도 차츰 그동안의 오랜 수행으로 이룩한 법(法)의 힘이 지독한 가뭄의 풀처럼 시들어가고 있는 사실이었다.

두사람만의 생활이 그럭저럭 한달이 넘게 되자 우녀는 광법하기는커녕 아예 어리석은 아낙이 되어 있었고 인담도 그런 우녀의 뒤를 부지불식간으로 따르는 듯이 그 심식(心識)의 강건한 체계가 얼음장이 층층으로 녹아내리는 봄의 어느 날처럼 어리수굿한 남정네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괜히 오른손을 공중에 치켜들기도 하고 왼손으로 바위결을 쓰다듬기도 하지만 그런 짓거리조차 어딘지 모자라는 사람의 헛된 동작이었다.

오른손은 반야의 뜻이고 왼손은 삼매의 뜻이라는 그런 대일경소(大日經疏)의 수농부처럼 적당하게 게을러졌고 우녀역시 오랜 실림살이에 겨워 느지막히 하루 한 끼니의 점심공양을 지어 두 사람이 발우(鉢盂)대신 사발에 수북한 밥을 담아 달그닥거리며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이틀에 한번씩 하는 찬물 마찰도 하지 않게 되었고 빨래하는 날도 정한 것이 아니어서 아래채 우녀의 방 구석에는 빨랫감이 제법 쌓여 있었다.

첫여름이었다. 그러나 방은 추운 편이었다. 어쩌다가 인담이 우녀의 방에 가서 몇마디 시시껄렁한 잡담을 나눈 나머지 싱겁게도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그런 뒤로 인담은 아예 우녀의 방에서 자게 되었다. 우녀도 그런 인담과의 합방을 유난스레 외식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겨울을 넘긴 오래된 무우처럼 물렁물렁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의 밤이 음양간의 그런 일이 있는 것도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란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물품 ●정보교환소식 ●지체홍보 ●인재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께 피해를 주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품목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과골신경통 · 목,허리 디스크
전문시술원 압구정역
院長 張三洙
아 · 七一一 · 四三七〇 주 · 五四二 · 七三〇六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간경화 · 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십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권 출간!
우학스님 수필 · 시 · 소설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좋은인연 053)475-3707

스님을 모십니다
역학 및 관상학에 능숙한 스님
● 연 령: 45세 이상
● 부산최고 요지의 "포교원"
● 문의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연락처 : (051)465-1009

백자기 분수대 60% 특별할인판매
전문 도예가 작품
(발해도예, 건흥도예)
大 130,000원
中 100,000원
小 75,000원
낙관 보증서 재중
야간 조명등 부착
건조하고 탁한 공기를 신선하고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공급처 : K.C 종합상사
☎ 884-0468~9
FAX 889-6705
관악구 신림본동 11-19

불미불사
사업의 회부에 보시는 석물, 석탑, 석등(돌)대신, 청동부처님, 청동탑 청동등(청동)으로 조성해 드립니다.
청동불사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 사암의 스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일자를 정해 본인이 직접 찾아 뵙고 원하시는 상호, 도안과 주위 조경 전반까지 상담해 드리겠읍니다.
☎ (0331)282-2931 · (011)211-2931
삐삐 015-8415-2931

49제 및 영가합동 천도제 필요하신 분 연락주십시오.
전화 : 032-933-9399
호출 : 012-1120-9396

○스님 염불 전용 녹음실
염불 전용 녹음실
●세계 최신녹음 장비 ●경력 30년의 녹음기술
●염불 녹음 하실 스님
●비용 때문에 망설이신 스님
그러나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저도 즐가 사문 입니다.
연락처 : 0417)551-1562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T. 소그룹 지도
▷ 안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귀의 삼보하옵고
하이얀 도화지처럼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게 이해할수있도록
제작한 불교그림동화(한글) 「깨달음의 세계」(6배판 밀)및 단행본 「부처님일대기」가 재판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에 관한 출판 (소설, 시, 수필)시 사람에 필요한 일반 홍보물을 의뢰하시면 성심 성의껏 기획 ·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허나원 TEL.(02)932-6327, 937-5759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음각 복전함
• 홍성(상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영무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대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지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대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慶尙北道 합천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그림 · 조향숙